



2015  
통권 제7호

행복한 도시 세종!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세종의회소식

Sejong City Council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고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의 뜻 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희망찬 올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모든 일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많은 대형사고와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으나, 인내와 지혜로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명품 행복도시 건설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 속에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출범하였으며, 그동안 의원발의 조례규칙 48건 제정, 시의회 청사 건립비용 국비 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또한 지난 해에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3단계 이전이 모두 완료되어, 역사적인 정부세종청사의 시대를 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금년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 의회! 시민의 마음을 담아 바른 의정을 펼치는 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균형발전을 실천하는 의회! 창의적, 생산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조기 이전과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그리고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읍·면과 예정지역간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기반시설 완비,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자족기능 확충 등 현안문제에도 시민의 역량을 모아 상생의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6회 임시회에서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이 알차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속명절인 설날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검소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 깊은 시름을 주고 있는 구제역과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올미년 올 한해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이 행복한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데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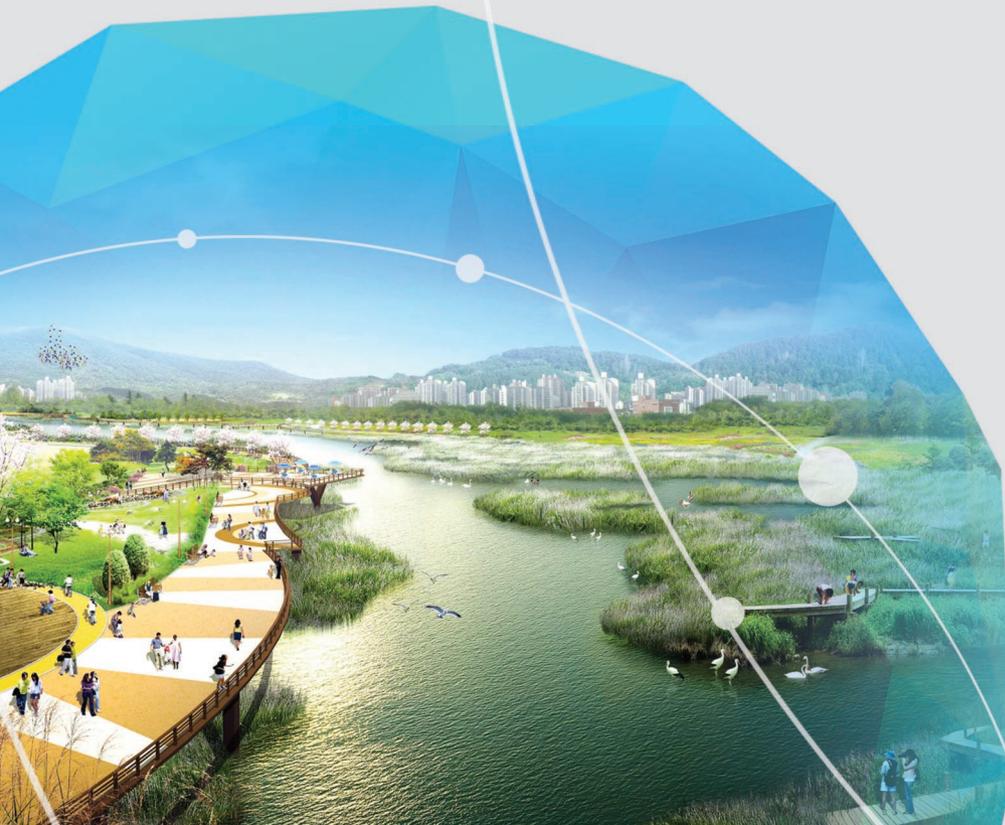


## Contents

- 
- 05 세종의정 소식
  - 16 긴급현안 질문과 답변
  - 21 5분 자유발언
  - 26 주요 안건 처리 현황
  - 30 결의안
  - 31 상임위원회 활동
  - 36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 40 세종시 가볼만한 명소 소개
  - 42 건강상식
-

News

# 세종의정 소식



## 제2대 세종시의회 2015년도 시무식 개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靑)의 기운으로 명품 광역의회 만들어가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윤형권 부의장을 비롯한 장승업 부의장,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시무식을 갖고 올미년 새로운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짐했다.

이 날 행사는 부의장님 신년인사, 떡케의 절단, 건배제의, 자유 대화, 의원 및 직원 상호간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형권 부의장은 새해인사를 통해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의원과 직원들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靑)의 기운으로 명품 광역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으며, 장승업 부의장은 “올 한 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자”고 밝혔다.

한편, 윤형권 부의장, 장승업 부의장,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의원, 김원식 의원, 김정봉 의원, 안찬영 의원, 이태환 의원, 정준이 의원은 장진복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당부했다.

## 2015년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환경교육 · 균형발전 ·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위원장 서금택)는 1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균형발전 연구모임』,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을 심의·의결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원실태를 조사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모임이다.

또한,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제정하여 현 추진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임이다. 마지막으로 조치원읍 강원연탄공

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조치원읍 인근 강원연탄공장에 대한 조기 폐업방안을 강구하고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모임이다.

서금택 위원장은 “이번 활동하게 될 연구모임은 광역의회에 걸맞게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위해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 의회 신청사 이전 철저히 준비해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금택)는 2월 3일 의회운영위 회의실에서 장만희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김정봉 의원은 “올해 말에 이전하게 될 의회 신청사와 관련하여 본회의장, 방송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타 시·도 의회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정준이 의원은 “현재 공석인 행정복지전문위원의 후임을 조속히 보충해야 하고, 5급 전문위원을 충원하여 입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고준일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광역의회로 출범을 하였고, 공무원의 직급도 상향되었지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원 보좌기능이 부족하다” 며 “업무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보좌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금택 위원장은 “의회 신청사 이전에서 행복청과 시청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도 중요하지만, 호화로운 사무실 물품을 지양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재질의 가구 등을 구입하여 오래 사용해야 하는 등 이전 준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정상화를 위한 빠른 인사 시행 촉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금번 업무보고는 29일에는 대변인, 총무과, 기획조정실, 30일에는 감사위원회,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등을 청취하였고, 위원들은 ‘미래부, 해수부, 안전처, 인사처의 조속한 이전고시와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문위원과 대변인, 감사위원장과 각 부서별 직원이 현재 공석인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자리를 채워,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인사를 촉구하였다.

한편, 2월 2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전 등 6건을 심의하였고, 오후 2시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현장 방문하였다.



##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및 재정비, 집행 촉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는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금번 업무보고는 29일에는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30일에는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위원들은 '시민들과 소통될 수 있는 정책추진과 신설국에 따른 업무관련 정확한 가이드라인 확정 및 조속한 업무추진'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도시재생디자인대학 운영 등 주민을 위한 사업이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 등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사업 및 안정적 물

가관리, 환경, 교통행정 등 시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및 재정비, 집행을 촉구하였다. 한편, 2월 2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교육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수준 높은 세종 교육 실현을 위한 '교무행정사 업무매뉴얼 작성 배포' 촉구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는 2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3일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기구인 학교시설관리단의 신설 및 한시정원(4급)을 반영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4일에는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박영송 위원장은 "교무행정사 업무매뉴얼 작성·배포로 수준 높은 세종 교육 실현,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 연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2월 2일 오후 2시 제26회 임시회 기간 중 죽림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금번 현장방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장방문은 죽림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종합복지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충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어지고 있는데, 어린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 등을 적극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며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이 수호천사 역할을 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의회사무처, 의정보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효율적인 의회지원체제 확립으로 복잡해지는 자치법규 입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진)는 2월 11일 하루 세종시 평생교육연구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과 보좌를 위한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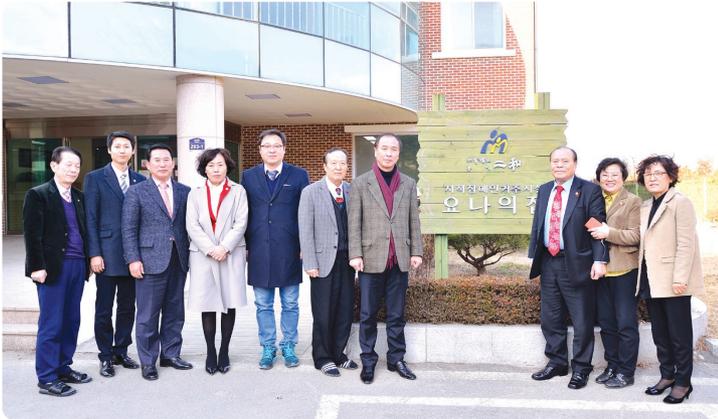
이날 교육은 오전에 안윤주 CS 솔루션 전문강사로부터 사무처 직원의 친절 마인드 정착을 위한 친절교육을 받았으며, 오후에는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이자 세종시의회 입법고문인 최민수 박사를 초빙해 조례안 작성 및 심사기법과 의회운영 및 의정보좌 활동방법 등 실무위주의 강의를 청취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광역의회로 발돋움한 세종시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자치법규 입법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의회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역량 확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고 하면서 “앞으로 최고 광역의회, 명품 세종의회가 되도록 일신하는 자세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 을 당부하고, “연중 내·외부 교육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정활동 펼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임상전)는 2월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격려했다.

조치원읍의 세종요양원, 연서면의 사랑의 마을, 전동면의 요나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장애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어려운 현실에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시설 관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격려했다.

임상전 의장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많으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중 지속적인 위문·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의회 비교 견학

전라남도의회 방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임상전) 이홍준 의회운영전문위원 등 사무처직원 13명은 2월 12일 하루 회기 중인 전라남도 의회를 방문해 의정지원 역량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출범2년6개월을 맞은 세종시의회로서 24년차 선진광역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사무 처리기법을 연찬하고,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경험을 공유하는 등 각 분야별 직원들이 고루 참여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하게 될 세종시의회 신청사의 회의장 등 공간 배치 및 활용 분야도 함께 파악하였다.

이번 현장견학 추진과 관련하여, 장만희 의회사무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과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 소관

분야별 주제를 정해 선진시책 및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연찬은 물론, 타 의회 선진시책과 사무처리 기법을 배워서 의정운영의 혁신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오늘 견학에 참가했던 이홍준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연찬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우고 느꼈다” 면서 “우리시 의회운영에 접목할 우수사례는 적극 반영 개선·보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의회는 행정수도에 걸 맞는 명품시로 발돋움하는 세종시의 으뜸광역의회를 표방하고 운영시스템 혁신과 공무원맞춤형교육 등 의정역량확충은 물론, 의회운영종합개선계획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광역의회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본격 가동

###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에서는 지난 2월 13일 의회 소회의실 3층에서 조치원읍 관내 숙원사업인 강원연탄공장 조기폐업방안을 강구하고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을 비롯해서 같은 회원인 박영송·이태환의원이 자리를 함께하였고, 외부인사로 유진성 우송전대 교수, 장교진 회원(시민대표), 그리고 집행부에서 광범홍 세종시 일자리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지난 1월 27일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에서 등록 의결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대표인 서금택 의원은 “첫 모임인만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앞으로 10개월여 동안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이 함께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환경교육 연구모임 첫 회의 개최

###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의원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에서는 2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교육의 자원에 대한 제반 실태를 조사하여 적합한 전략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세종시의회에서는 정준이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정하고 장승업 부의장,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외부인사로는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임비호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간사), 박경자 YMCA 부이사장과 세종시 관계 공무원으로는 윤석기 녹색환경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했다.

본 환경교육 연구모임의 정준이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첫 모임인 만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누구나 평소 환경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이번 환경교육 연구모임의 출범을 계기로 회원님 모두가 환경의 파수꾼으로써 앞장서 주신다면 세종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2기 열 번째 시정목표인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 조성’ 을 앞당겨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명품도시 세종시에 더 큰 희망의 시대가 찾아 올 것을 확신한다” 고 밝혔다.

이어서 ‘세종시 환경시설 현황 설명’ 과 ‘한국 환경교육 흐름과 이해’ 라는 주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토론과 향후 활동방안 협의를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 균형발전 연구모임 첫 회의 개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 윤형권 의원)에서는 2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연구모임을 위한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형권 의원을 비롯해 안찬영 의원, 김원식 의원, 김복렬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신상두 국토·농·축·청 기자,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 이흥준 의회운영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표의원인 윤형권 의원은 첫 모임에서 회원 소개와 세종시 균형발전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10개월여 동안 읍·면·동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세종시 균형발전 연구모임은 사업발굴과 예산지원을 위한 조

제비를 통하여 세종시의 신도심과 구도심인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박영송 의원,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워크숍 참석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나눔과 연대,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은 2월 27일 세종시 전동면 아람달 농촌체험마을에서 열리는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워크숍』에 세종시를 대표해 참석하였다.

이 날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참석한 30여명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조직구성과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2015년 사업계획을 처리하였으며,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김종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충남 사회적경제의 흐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청취하고, 김영배 성북구청장(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장)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초청강연 후 각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역현황 발표를 통해 박영송 의원은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하고, 나눔과 연대, 소통을 통해 세종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주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 밝혔다.

한편,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 2013년 10월 30일 창립하였으며, 지역공동체 복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초석이 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 지방의원간의 협의체로서, 전국의 지방의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경제 아젠다를 발굴하는 한편,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의 연합체를 통해 전국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육위원회, 학교급식 우수지자체 현장방문

### 지역 생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는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집행부의 급식담당 공무원과 함께 수범 자치단체인 강원도 횡성군 횡성학교급식지원센터와 원주시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현장방문하였다.

이번에 방문할 횡성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공동구매 및 일괄배송 처리로 가격하락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확대 등 성과를 이루었으며,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지역농산물에 대해 푸드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사용 확대를 도모하였다.

박영송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고 하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내 건강한 먹거리가 세종시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생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방안 마련과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시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방식을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

###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성장기반을 붕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3월 13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초로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30년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켜온 대국민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주장하며,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를 심화시키며 성장기반의 붕괴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인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국회본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신설된 정부조직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하였다.



## 2015년도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실무 위주의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생산적인 선진 광역의정 구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며 의원과 직원 합동으로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금년도 의정운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남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2015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하였다.

25일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문가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을 초청하여 '회의규칙 개정을 통한 의회 운영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어서 26일에는 양경숙 박사와 최인혜 박사로부터 각각 '행정 사무감사·조사 핵심작안사항 및 실천사례'와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의정스피치'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였다.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윤진훈 박사로부터 '집행부 업무보고 활용방법과 안전심사, 질문·질의 요령, 지방재정법 전면개정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편, 임상전 의장은 "제2대 세종시의회 출범 후 3번째 실시하는 이번 의정연수는 의회 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요령 및 기법 등 실무 위주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한편, 의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생산적 의회운영을 통한 선진 광역의정을 구현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찬영 의원, 세종시 농업발전 대토론회 참석

마을기업 육성과 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필요 역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3월 31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최로 세종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종시 농업발전 대토론회』에 시민대표로 참석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중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시 농업의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초발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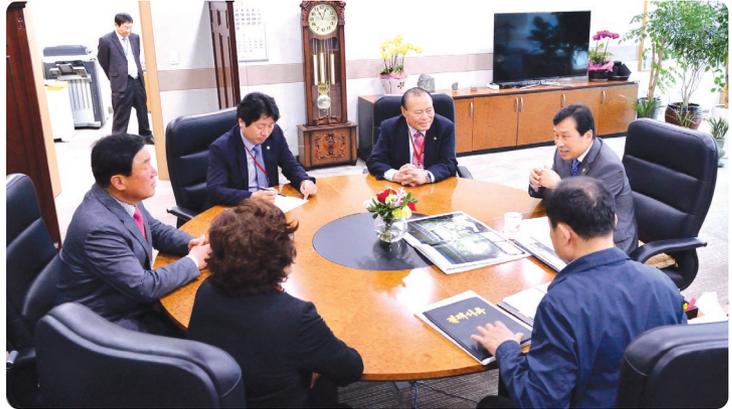
이어서 노경상 한국축산발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하였으며,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 정용화 세종시 명예농업부시장, 이금옥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장, 강경심 공주대학교 교수 등 11명의 토론자들이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사회적 농기업 육성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였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안찬영 의원은 "우리 세종시에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공동체 문화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지원정책 보다는 농업인 개개인에 맞춤형 지원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 관련 행복청 방문

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의회와 지속적인 협조와 협의 추진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을 비롯한 윤형권 부의장, 박영송 교육위원장, 김정봉 의원은 3월 31일 의회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을 방문하였다. 이날 이충재 행복청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과 의원들은 “민의를 전담인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신청사의 차질없는 건립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민의의 대변자로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세종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충재 행복청장은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는 훌륭한 의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시의회와 꾸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며 “이 뿐만 아니라 세종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자없는 공사추진과 완벽한 시설물 인수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세종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신청사는 보람동 3-2생활권 일원에 총사업비 1,094억원을 투입, 연면적 6,089㎡에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는 지하층까지만 완공한 상태로 시청사의 경우는 오는 7월 1일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 환경교육 연구모임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현장 벤치마킹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와 기반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방향성 모색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에서는 3월 31일 지자체 수범지역으로 평가받고있는 충남 천안소재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해 시민 주도형 환경교육 시설견학과 운영 상황 전반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차수철 사무국장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환경문제를 꼽을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환경교육에 투자하는 물적, 인적, 재정적 수준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단체 그리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 정준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경우 급속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공동체 건설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워크숍 및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통해 환경교육 자원실태 조사 및 전략을 수립하여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예정이다.

Emergency Interpellation

# 긴급현안 질문과 답변



Question

## 세종시교육청의 공무원 인사와 교육행정 감사

제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윤형권 의원

**Q** ▶ 현재 교육청(교사 포함)의 공무원 중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의 수는?

**교육감** ▶ 2015. 2. 5.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 수는 526명 중 226명으로 43%임.

**Q** ▶ 공무원이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교육감** ▶ 긴급한 비상사태시에 대처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방과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 학부모 등 시민들의 공무원과의 정서적 유대감 결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Q** ▶ 임용이나 전입 등 인사에서 세종시에 거주하면 가산점이 있지 않은가?

**교육감** ▶ 신규 임용시에는 누구나 공무원임권에 대한 기회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가산점은 없으나, 경력직공무원 전국 공모 등의 일반전입의 경우는 세종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따라 1~3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Q** ▶ 가산점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교육감** ▶ 세종시에 거주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세종시의 납세자로서 높은 애향심과 사명감 발휘로 세종교육에 크게 공헌할 것임

**Q** ▶ 임용이나 전입 때 가산점을 받고도 실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교육감** ▶ 세종시에 거주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세종시의 모든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조치할 수는 없음.

**Q** ▶ 특히, 모든 부분에서 출선수범해야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세종시에 거주지를 두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거주 계획은?

**교육감** ▶ 과장급 이상 간부 16명 중 7명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명은 분양 후 입주대기 중이고,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7명(43%)은 추후 이사할 계획임.

**Q** ▶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등 인사에 참고할 용의는 없나?

**교육감** ▶ 전보 등 인사운영에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곤란함.

**Q** ▶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교육감** ▶ 2014년까지는 대전까지 출퇴근버스를 운행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이를 중단하고, 조치원 과 예정지역으로 한정 운영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Question

세종시교육청의 공무원 인사와 교육행정 감사 제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Q** ▶ 감사위원회 출범은 중복감사를 줄여 비효율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감** ▶ 감사위원회의 설치 취지는 중복감사를 줄여 감사업무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자라는 취지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배제하여 자율적 내부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 및 교육행정을 추구해야 함.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켜 발전된 형태를 취하였으나, 현 법령체계하에서는 단일 감사체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추후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및 인사·예산 독립 등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개선을 도모해야 함.



**Q** ▶ 교육청이 위원회에 3명만 파견하고 감사관실을 별도로 존속시킴에 따라 위원회 설치의 당초 취지가 손상되고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교육감** ▶ 현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감사중복 등 비효율적 부분은 협력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선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감사전문가 중심으로 소수 정예 우수 인력을 위원회에 파견하고 중복감사 등을 해소하고자 협력감사 시스템을 구축 준비 중에 있으며 상당히 업무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청 본청 등 감사시 중복감사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국과 교육청 감사관실이 협력하여 동시에 감사를 하고, 그 결과 처리는 감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Q** ▶ 학교감사를 교육감이 해야만 교육자치인지?

**교육감** ▶ 교육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감사시 학무행정의 전문가가 교육정책과 연계된 교육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Q** ▶ 교육청에서 2명의 감사위원을 추천하였으므로, 교육자치 취지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감** ▶ 감사위원 중 2명을 교육청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다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각급학교 감사시 교육자치를 이해하는 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Q** ▶ 감사위원회 반쪽 구성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감** ▶ 감사위원회가 미흡하게 출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는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함. 그러나, 그것은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게 되는 법률의 불완전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교육청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Question

## 행복도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

제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찬영 의원

**Q** ▶ 이미 설치된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행복도시건설청 특별회계에서 시설 비용을 부담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부담함으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원가 인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시장** ▶ 의원님의 말씀대로 행복도시건설청은 대전시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까지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대전시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08~'11년, L=12.7km / 사업비 322억원)하고, 향후 30년간 원리금(764억원)을 분할 정산한다는 협약을 '07년 대전시·LH와 체결하고, '11년 행복청은 수도물 공급요금(시설요금 포함)을 연기군이 납부토록 업무분장협의를 함으로써, '12.7월 출범한 우리시가 시설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2년간 1,306백만원 납부) 앞으로 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노력하여 요금원가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대전시와 행복청, LH 등 3개 기관이 2007년 3월 '행복도시 용수 공급협약'을 체결한 기반시설비 부담내역을 보면 직경 1,000mm와 거리 12.7km의 상수도관로를 설치했는데, 1단계 생활용수 배수지 위치와 규모, 그리고 공급지역은 어느 곳인지?

**시장** ▶ 세종시 행복도시 1단계 생활용수 배수지는 3개소가 있으며, 1배수지(5천톤/일)는 고운동에 2배수지(1만5천톤/일)는 도담동에 3배수지(1만1천톤/일)는 새롬동에 위치하고 있고, 공급지역은 첫마을내 한솔동, 어진동을 비롯하여 가람·도담, 고운·나성·새롬·아름·종촌·대평·다정동이 있음.

**Q**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0조 제3항 10호는“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 제2항은“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고, 제39조 14호에서는 건설청장의 업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수도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행정도시특별법이 명료하게 사업비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시장** ▶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에 명시된 사항과 같이 행복청에서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Question

행복도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 제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Q** ▶ 본 의원이 관계기관을 직접 출장하여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제23조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보고, 행복도시 내 수돗물 공급요금 납부의무를 세종시 출범 전까지 연기군에서 한시적으로 승계한 사례도 있고, 또한 현재 상수도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세종시가 생활용수 기반시설비 부담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는 대전시에서 행복도시까지 송수관 설치비용 발생의 원인이 원인자인 행복청과 LH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대로 국가에서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 기반시설비용 부담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관계 기관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으로서 시장님께서서는 타 기관의 입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에도 舊 연기군에서 승계했다는 이유로 세종시가 기반시설 부담주체임을 주장하나, 이 경우 수돗물공급협약서 제11조 등에 명시된 『승계자가 협약에 따른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환경부에서도 송수관로 설치의 원인자인 행복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행복청(또는 LH)이 舊 연기군에 이어 우리시에 시설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Q** ▶ 시설부담금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시장** ▶ 세종시 출범이전부터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도 상수도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행정절차(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상정 중)를 거쳐 명확한 부담주체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 등에 수도시설 기반시설비에 대한 협조를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음.

**Q** ▶ 지난 2010년 11월 16일자, 행복도시건설청과 대전시, LH 등 3개 기관의 행복도시 수돗물 공급협약에 의하면, 대전시는 1일 6만 톤을 용수하기로 하고 투자한 송수관로 공사비 322억원을 복리이자 年 6%로 계산하여 2011년부터 향후 30년간 물 이용금에 포함하여 총 납부할 부담금 약 764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기 납부한 약 13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납부해야 할 약 751억원으로 인하여 결국 상수도 원가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응과 기관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시설비 부담을 줄여 나감으로써 이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시장** ▶ 행복청, LH, 대전시 3자간의 수돗물 공급협약은 우리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우리시는 그간 수처에 걸쳐 그 부당성을 행복청 등에 이의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나 행복청 등과의 원만한 합의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한바,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주체가 국가로 편명된다면 정수구입요금 인하 및 요금 현실화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5분 5 Minutes Speech

## 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제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운주산·오봉산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

전동면과 전의면에 걸쳐 있는 운주산은 우리 시에서 가장 높은 460m이며, 세종시 기념물 제1호로 백제 부흥운동의 최후 구국항쟁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된 운주산성이 자리잡고 있는 명산입니다.

최근에는 산성주변에 공원도 조성되고 전동면에 위치한 망경산, 동림산까지 이어진 10여 km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2시간에서 8시간까지 다양한 코스로 산행을 즐길 수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이 꾸준히 찾고 있지만, 전국의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와 안내판 정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조치원의 진산인 오봉산도 맨발등산로와 휴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지만,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말이면 주변도로까지 차량이 넘쳐나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현재의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와 인성교육 인프라 구축

세종시 신도심 지역인 도담동과 한솔동에는 세종시 인구 16만명 중 6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3~40대의 젊은 부부들로 85%이상이 취학 전·후의 아동을 키우며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57개의 보육시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가 있는데, 특히,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전국 26개의 시·군에 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세종시에는 부강면 복지회관 3층과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현재 공보육의 틈새를 지켜내는 육아돌봄 뿐만아니라 돌봄 품앗이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시 인성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효문화진흥원을 설립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조례 제정에 관한 업무의 부서를 정하고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 ▲공직자에 대한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준이  
의원



(제27회 임시회)

## 읍면지역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 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정지역이나 편입지역 등으로 말하거나 오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신도심 지역과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 모두 세종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도시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도시 건설지역의 일반적인 민원행정은 세종시가 맡고 있고, 신도심 건설은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원화된 행정체제로 행정의 비효율과 함께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세종시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직도 세종시와 읍·면을 별개의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정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용어 정립을 통해 세종시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대통합과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조치원읍의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오래된 도시 지역의 도로나 건물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새롭게 고치는 도시 개발 방식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사업비로 60억원에서 250억원, 그리고 계획수립비로 5천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청춘조치원과를 설치하여 인구 10만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조치원읍의 도시재생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연탄공장 이전, 교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난 해소사업 등은 조치원읍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조치원읍의 도시재생사업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용역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치원의 역사성과 특성 그리고 지리적 여건 및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해 오는 4월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금택  
의원



(제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지난 6·25전쟁으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66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UN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OECD국가이자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원동력은 국민들의 근면과 성실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이면에는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제 우리 세종시도 참전국에 대한 문명퇴치사업, 의료 및 약품 지원, 생활용수개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물론, 6·25참전 전사자의 유가족에 대한 장학사업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교류 사업에 눈을 돌려야하며, 안으로는 국제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화 역량을 극대화하고, 밖으로는 공적개발 원조 참여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전담기구 및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부서와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의 공적개발사업에 연계한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세종시에 맞는 공적개발지원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제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동부권 균형발전 촉구

읍면지역과 예정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어 세종시가 균형발전 도시라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동부권 균형 상생발전을 위해 금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산길을 이용하여 금강변 산악 바이크 코스를 만들어 주변 인프라와 자연지형을 이용한 건강여행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100여년전에 서해 소금배가 부강나루까지 올라와 상단이 형성되었는데, 옛 전통을 살려 세종보에서 호수공원 앞을 지나 부강나루까지 뱃길을 개발하여 과거 경제가 융성했던 시절을 되새기며 상업 부흥기에 대한 경제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부강약수를 이용한 향토 음식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김정봉  
의원



(제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세종시 민간위탁사무 매뉴얼 작성 촉구

박영송  
의원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세종시는 45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올해 상반기에 15개 사무를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향후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민간위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지만,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과(담당)마다 각자 다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각종 민간위탁사무 매뉴얼을 작성, 관계공무원에게 배포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획조정실은 포괄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실국에서는 복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세부적인 위탁매뉴얼을 작성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관계 법인이나 단체와 매뉴얼을 공유하여 심사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민간위탁사무가 되어야 합니다.



(제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와 맞춤형 인재 육성해야

이태환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을 9%를 기록하고 있으며, 어려운 취업난에 구직단념자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종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으로 민선 제2기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후 2015년 1월까지 증가한 약 6만여명의 시민 중에 13,255명의 20~30대 청년들이 세종시를 떠났으며, 이는 세종시 전체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미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연계해야 합니다.

(제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아름동 주민센터 인력지원 촉구

고준일  
의원



최근 세종시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입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름동 인구도 현재 11,000세대에 인구 34,000명으로 아름동 주민센터를 개청한 지 불과 한달 사이에 무려 7천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고운동에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올해에만 10,665세대, 4만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연말에는 총 7만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름동 주민센터는 매일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찾고, 전입 문의전화도 100통 이상 폭주하고 있는데 반해, 민원 담당 직원은 3명에 불과하여 평균 대기인원이 50~60명, 대기시간은 1~3시간에 이르는 등 민원인들이 넘쳐나 복도에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3~5명 정도의 인원을 시급히 지원해야 하며, 오는 4월에 준공되는 종촌동 주민센터에 아름동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주요 안건처리 현황

Main Agenda



## 제26회 임시회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6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식 의원, 정준이 의원, 서금택 의원, 김정봉 의원, 박영송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한편, 윤형권 의원은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사 및 교육행정 감사와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였다.

### 주요처리안건

#### 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제안자** : 정준이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 정 및 교육행정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 사무처에 등록된 연구모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0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지하공동구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전력, 상수도, 냉·난방,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체계적·계획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각종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시설의 취약부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시설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망 등 다른 시설물까지 확대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상반기 중 관리 및 운영 예정인 행복도시건설 지역 2-3생활권내 공동구(1구간) 시설물 국가보안시설 “가”급 해당되어 공동구 시설 관리운영 업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전문 관리자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해서 안정적인 시설관리 업무역할수행 하고자 함.

#### 0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수정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 시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콜센터 운영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04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함.

#### 0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정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함.

## 제26회 임시회

### 그 밖의 처리안건

#### 조례안(4건)

- 교육감 제출(3건)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근무지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 의원발의(1건)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원안가결)

#### 기타안건 (1건)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장진복) 임명동의안(원안가결)

시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정의 편에서  
늘 함께하는 세종시의회

## 제27회 임시회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7회 임시회에서는 이태환 의원, 서금택 의원, 고준일 의원, 정준이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한편,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찬영 의원이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추진과 관련한 수도물 공급협약’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 주요처리안건

#### 01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 서금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0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행복청 총괄, LH에서 사업시행하여 지난 '14. 10. 28일부터 세종시가 운영 개시한 공공자전거 시범사업의 공공시설물로서 이관 근거가 없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및 관련 조례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함.

\* 운영센터 및 운영시스템 1식, 대여소 21개소(거치대 282개), 공공자전거 230대

### 그 밖의 처리안건

#### 조례안(3건)

- 시장 제출(3건)

- 중앙부처 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기타안건 (1건)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수정가결)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제120조 제2항, 제123조제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성문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초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고자 지난 1982년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이다.

위와 같이,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정부는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과 함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률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시한을 못박는 지경까지 이르는 등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방안에 대한 정부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세종시 정상건설 및 조기정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만여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세종시 정상건설 및 조기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을 붕괴하는 수도권만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본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하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거나 분리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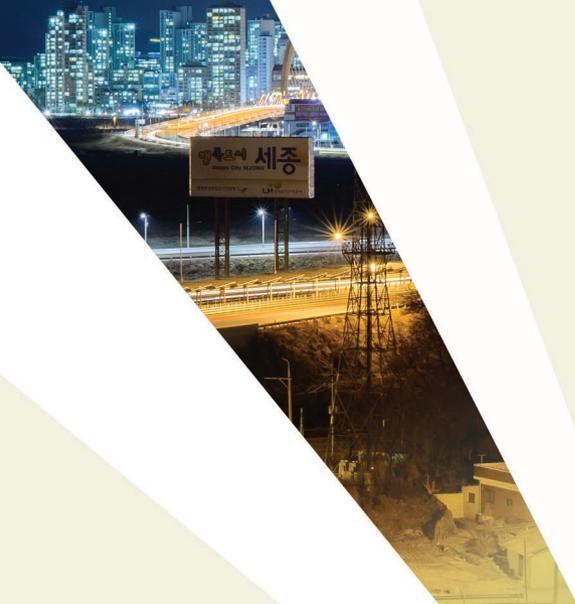
2015. 3.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tanding committee

# 상임위원회 활동

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 의회운영 위원회



서금택 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



고준일 위원



김원식 위원



김정봉 위원



장승엽 위원



정준이 위원

- 제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였으며, 2월 6일에는 공무원 인사 및 교육행정 감사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요청에 따른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다.

-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였다.

- 전국 의회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참석 및 전국 의회운영위원 합동연찬 참가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들은 지난 2월 25일에서 27일 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전국의회운영위원 합동연찬회에 참석했다. 첫째날 서금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부예산지원 촉구 건의문과 공직선거비용 제한액 개선촉구 건의문,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지원결의문 등 모두 5건을 채택하여 중앙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둘째 날인 26일과 27일 1박2일 동안 서금택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은 전국의회운영위원 합동연찬회에 참석하여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강연 등을 청취하고 17개 시도위원과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행정복지 위원회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



박영송 위원



서금택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엽 위원

- 제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한편, 2월 2일 오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등 총 6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월 2일 오후에는 죽림어린이집 외 3개소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현황 및 운영상황 등을 청취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어린이집 관련 문제점의 개선방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9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 산업건설 위원회



고준일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김정봉 위원



안찬영 위원



이경대 위원



이태환 위원

- 제26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청취하는 한편, 2월 2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을 심의하여 부결 2건, 보류 3건, 원안가결 1건을 의결하였다.
-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9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을 심의하여 보류 1건, 원안가결 2건을 의결하였다.



사람중심 의회, 균형있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 교육 위원회



박영송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안찬영 위원



윤형권 위원



이경대 위원



이충열 위원

- 제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3일~4일 교육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교육위원회는 지역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방안 강구를 위한 현장방문을 다녀왔다. 직영(형성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위탁(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으로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급식 질 향상 및 원가 절감등의 성과를 일궈낸 기관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지역 생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방안 및 우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시 직영 및 위탁 운영의 장·단점 비교 등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내외일보**

2015년 02월 16일  
 08면 (충경/강원)

**조치원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모임 기동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의회 소회의실 3층에서 조치원을 관내 속원사업인 강원연탄공장 조기폐업방안을 강구하고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을 비롯해서 같은 회원인 박영송·이태환의원이 자리를 함께했고, 외부인사로 유진성 우송전문대 교수, 장교진 회원(시민대표), 그리고 집행부에서 곽점홍 세종시 일자리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지난 1월 27일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의결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대표인 서금택 의원은 “첫 모임인만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앞으로 10개월여 동안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이 함께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박대훈 기자  
 pdh@naewoelbo.com

(12.0\*20.0)cm

내외일보 / 2. 16

**충청투데이**

2015년 02월 13일  
 15면 (지역)



**세종시의회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가 12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격려했다. 이날 시의회는 조치원읍의 세종요양원, 연서면의 사랑의 마을, 전동면의 요나의 집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8.2\*6.1)cm

충청투데이 / 2. 13

충청투데이

2015년 02월 24일  
15면 (지역)



세종시의회 환경교육의원 연구모임이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환경교육 자원에 대한 제반 실태를 조사에 따른 전략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첫 회의... 시설 현황 등 논의

세종시의회는 23일 세종시 환경교육의원 연구모임이 세종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환경교육 자원에 대한 제반 실태를 조사에 따른 전략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정준이 대표위원을 비롯해 장승업 부의장, 이종열 행정복지위원장,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임비호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간사), 박경자 YMCA 부이사장, 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환경시설 현황'과 '한국 환경교육 흐름과 이해'를 주제로, 토론 및 향후 활동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준이 대표위원은 "회원 모두가 환경 파수꾼으로 앞장선다면 세종시 역점 시책 자원이 숨쉬는 도시환경 조성을 앞당겨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명품도시 세종에 대한 더 큰 희망의 시대가 찾아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11@cdtoday.co.kr

(12.7\*12.7)cm

충청투데이 / 2, 24

한국일보

2015년 02월 25일  
14A면 (충청/강원)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 창립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 윤형권 부의장)이 24일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 모임을 통해 지역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지원 관련 조례 정비 등 신·구도심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실천전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14.1\*9.3)cm

한국일보 / 2, 25

**특정주제** 2015년 03월 13일

## 집행부 혼자하기 어려운 일, 시의회가 나선다

세종시의회 3개 연구모임, 첫 회의 갖고 市현안 '맞손'  
 균형발전·조치원연탄공장 운영·환경교육 등 로드맵 마련

**시의회 속으로**

세종시의회(의장 양상민)의원들이 주축이 된 3개 연구모임이 최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市현안문제 해결에 나섰다.

가장 먼저 발족한 것은 '조치원 권역 연탄공장 운영 연구모임'이었던 서경택이다. 권역 연탄공장은 조치원읍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보다 본지와 도시지역 자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 집행부가 포괄적인 결정을 내리기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2기 시의회 출범 후 서경택 의원의 주선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셈이다.

이들은 2월 13일 첫 회의에서 연구모임의 취지와 목적, 연탄공장 기본현황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연탄공장이 열리면 시설 구조를 갖고 있어 2차 피해 우려와 조치원을 및 균형발전에 지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이들은 향후 일과 관련 ▲연탄공장 허가 권위와 재원장 운영 실태 ▲공정 배급 보상 방안 등에 대해 자료를 확보한 뒤 상세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22일에는 환경교육 연구모임(의장 양 13)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 출범 후 남겨진 인문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공언한다'며 모

임 총원의 직정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세종시를 환경 으뜸도시로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보였다.

또 이들은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정 ▲환경교육 시범학교(초·중·고·지역·운영 및 환경교육 학회 발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연구모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도는 북방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한 균형발전 연구모임도 지난달 24일, 발족의미를 개최하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향시향 미래들은 타 도농복합도시 사례 현황 조사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를 선별, 이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 사업과 예산배정 등을 점검한 상민 투 서훈 시 단총재와 유사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진행키로 했다.

이같은 연구를 거쳐, 관공·분과 등 상계, 단계를 특성 등이 유사한 제 주도의 정자·행정 사례를 비교하고 거점지역별 주요 혁신도시의 신·구도건 강원대·사해 등도 살펴보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03-8-33-80

굿모닝충청 / 3. 5

**대전투데이** 2015년 03월 13일  
02면 (종합)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급식 우수지자체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는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집행부의 급식담당 공무원과 함께 수평지치단체인 강원도 횡성군 횡성학교급식지원센터(태원주시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15.5\*10.4)cm

대전투데이 / 3. 13

2015년 03월 16일  
14면 (지역)

### 중도일보

## 세종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국회분원 등 조속시행 요구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3일 제 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경제의 근간 기조로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30년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켜온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

를 심화시키며 성장기반의 붕괴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인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속가능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신설된 정부조직의 세종시 이전 고사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김광배 기자 kkb1100@17.0+11.8cm

중도일보 / 3. 16

2015년 03월 25일  
06면 (종합)

### 동양일보

## 세종시의회 2015년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임상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경남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2015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25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문기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을 초청, 회의규칙 개정을 통한 의회운영

선진화 방안 에 대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26일 오전에는 지역특성화사업현장인 장지도 해상공원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양정숙 박사와 최인혜 박사로부터 각각 행정사무감사조사 핵심책임사항 및 실천사례 외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의정스피치 에 대한 강의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 27일에는 윤진훈 박사로부터 집행부 업무보고 활용방법과 안전심사, 질 문 질의 요령, 지방재정법 전면개정내용 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연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상전 의장은 이번 의정연수는 의회 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의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생산적 의회운영을 통한 시민의 기여 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규호>

14.4\*7.6cm

동양일보 / 3. 25

2015년 04월 08일  
05면 (종합)

### 동양일보

## 복지현장 방문… “노인문제 장기적 대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서천군 노인복지관을 찾아 현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고행자용 보금자리주택 등이 단지화된 시설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 노인들의 심신안정과 관련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올 8월 세종시에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의 상생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노인들의 주거와 의료, 문화, 경제활동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으로 노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규호>

14.5\*13.2cm

동양일보 / 4. 8



## 고북자연공원

연화사를 나와서 연서면 고북리로 가면 1,949km<sup>2</sup> (고북리 1,949m<sup>2</sup>, 용암리 805,864m<sup>2</sup>)의 넓은 면적을 가진 고북 저수지를 만나게 된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가물치, 붕어, 잉어, 메기등 풍부한 어종을 가지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구)연기군에서는 1990년 군립공원으로 지정 하였으며, 주말이면 전국에서 '붕어 손맛'을 보려는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드는 유명한 낚시터로 자리잡았다. 저수지 한편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화여대 미술대 강태성 교수가 조성한 야외조각공원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고북저수지 중간지점에는 '민락정'이 있어 정자에 올라 저수지를 관망하면 그 경치또한 일품이다. 고북저수지 주변에는 한방오리와 메기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등이 산재해 있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구어 준다. 주변마을에는 포도, 복숭아, 배를 재배하는 과수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상업시설, 숙박시설, 각종 공공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다. 주변의 도로를 따라 500m정도 올라가면 조각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약간의 체육시설과 잔디밭이 있어 또 다른 쉼터를 제공하여단체나 기업등이 이 곳을 야외 회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찾아가는길** | 조치원 역에서 시민체육관 경유 공구 방면으로 604번 지방도로를 따라 7km 정도 거리 (소요시간 10분)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북리, 용암  
**주차시설** | 저수지 주변에 간이 주차장, 순환도로 - 6.5km

## 베어트리파크

베어트리파크는 10만 여평의 대지에 1,000여종 40만 여점에 이르는 꽃과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진 수목원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동물과 나무가 조화롭게 조성된 동물이 있는 수목원이다.

영화 드라마촬영지로도 유명하고, 특히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이 진품으로 전시되어 있어 찾는 이들이 탄성을 지른다. 그리고 오색연못 속 수백마리 비단잉어의 움직임은 또 다른 아름다움의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신송로 217  
**문의처** | 044)866-7766, 팩스 044)862-5077  
**기간** | 4월 ~ 9월 : 오전 9시 ~ 오후 7시  
 10월 ~ 3월 : 오전 9시 ~ 오후 6시  
**쉬는날** | 연중무휴



## 세종시의 자랑! 세종 호수공원



세종 호수공원은 면적 61만㎡, 수면적 32.5만㎡, 일산 호수공원의 1.1배(축구장 62개) 크기로 국내 최대규모입니다. 테마섬,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이 함께 조성되어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세종시의 문화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5개의 주제를 가진 인공섬으로 축제섬, 무대섬, 물놀이섬, 물꽃섬, 습지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수 가운데에 위치한 무대섬은 “햇살을 머금고 있는 강가의 돌”이라는 형상으로 면적 1,805㎡, 670개의 객석을 갖추고, 최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각종 문화공연 행사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시 예정지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은 물론, 세종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정부세종청사 옆)

## 자연과 함께 떠나는 캠핑! 합강 오토캠핑장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은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된다고 하여 ‘합강리’라 불리는 곳인 이 곳은 금강 8경 중의 하나로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조성되었다. 면적 10만㎡, 59면(사이트)으로 2012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사이트 하나하나가 모두 널찍하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2동 취사장 5동, 샤워장 1동외에 주변에 다목적 운동장, 놀이터, 자전거 도로 등이 있어 가족들과 주말 레저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390-2

전화 | 044)862-5985



##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

### 혈압이란?

혈압은 심장의 박동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혈압을 이야기 할 때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두가지 숫자를 사용합니다. 최고치는 심장이 피를 뿜어내기 위해서 수축할 때의 수축기 혈압이고 최저치는 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심장이 확장할 때의 확장기 혈압입니다. 혈압은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의 체중, 연령, 운동전후, 식사전후, 스트레스, 온도, 습도, 계절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 정상혈압

수축기 혈압 < 140mmHg  
확장기 혈압 < 90mmHg

#### 고혈압

수축기 혈압 > 160mmHg  
확장기 혈압 > 96mmHg

#### 경계고혈압

정상혈압과 고혈압의 중간혈압

### 고혈압이란?

고혈압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입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30mmHg 미만이고, 확장기 혈압이 85mmHg 미만인 경우입니다. 정상혈압과 고혈압 사이에 속하면 [높은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고혈압의 진단은 우연한 기회에 한번 측정하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140/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고혈압의 증상은?

고혈압이 진행되면 ① 뒷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개운치 않으며 ②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③ 손발이 저리고 찬 증상이 나타나고 ④ 신경이 예민하고 잠이 잘오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은 대부분 아무증상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이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다가 다른 합병증이 발병되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고혈압을 방치하면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는

**예방** - 정기적인 혈압측정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정상인도 1년에 한번은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치료** - 약을 복용하므로써 쉽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약을 장복하게되면 신체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약복용을 며칠씩 중단하거나 스스로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혈압에 쓰이는 약들은 처음부터 장기복용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압측정으로 정상혈압을 유지합시다.

## 혈압측정시 주의할 점

- 01 혈압측정에 앞서 5~10분 이상 안정을 취할 것
- 02 편안한 자세로
- 03 담배, 커피, 술을 피할 것
- 04 정신적 안정을 피할 것
- 05 일반적으로 수은 혈압계가 가장 정확하다.

## 왜 고혈압을 조심해야 하나?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 01 심부전증, 심근경색증
- 02 만성신부전증
- 03 뇌졸중
- 04 시력소실, 실명 등의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  
SEOJONG CITY COUNCIL INTERNET BROADCASTING



생방송



영상회의록



의정뉴스



생생의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 <http://counciltv.sejong.go.kr/>

##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

회의영상 및 의정활동 모습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과 녹화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회의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록**

본회의·상임위·특별위원회 녹화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뉴스**

다양한 의회 관련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생생의정**

의정활동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간편한 모바일서비스 QR코드  
SEJONG CITY COUNCIL

#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의회소식지인 「세중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이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보내실곳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담당자 전성수)  
우편번호 : 339-705

전화 | 044.300.7242  
팩스 | 044.864.0589  
이메일 | 77jss@korea.kr



**세중의회소식**  
Sejong City Council

2015  
통권 제7호

발행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공보담당)  
발행일 | 2015년 5월 통권 제7호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전화 | 044-300-7242  
홈페이지 | <http://www.council.sejong.go.kr>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